

수능완성
언어와 매체
심화 총정리

매체의 경우 번호에 (매체)라는 표현을 달아줬으
니 학습에 참고

1. 여덟과의 발음은 [여덜과]이다.
2. 물약의 발음은 [물락]인데 ㄴ 첨가가 일어날 때 ‘ㅍ’라는 이중 모음의 반모음 ‘j’ 앞에서 ‘ㄴ’이 첨가된 것임(즉 심화하면 ‘ㄴ 첨가’의 조건도 물을 수 있으니 외울 것)
3. 잠일의 발음 [잠닐]에서 ‘ㄴ 첨가’는 ‘l’ 앞에서 일어난 것
4. 달힌의 발음은 [다친]인데 ㅎ 보인다고 바로 축약! 이러면 절대 안됨 ㄷ과 ㅎ이 만나 축약이 이뤄져 ㅌ이 된 이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ㅊ이 된 것임
5. 불놀이의 발음은 [불로리], 드넓지의 발음은 [드널찌]
6. 조사는 단어이지만 어미랑 접사는 단어는 아님, 물론 세 개 다 형태소는 맞음

7.

문제: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인 ‘하늘’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덧개’와 같은 경우도 있다. ‘에서부터’와 같은 일부 합성 조사를 제외하고 조사는 형태소이면서 단어이지만, 어미나 파생 접사는 그 자체로는 단어가 아니고 형태소일 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를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참새 ㉠때가 ㉡정답게 ㉢지저귀는 ㉣소리에 ㉤깨었다.

		형태소	단어
①	㉠	때, 가	때, 가
②	㉡	정, -답-, -게	정답, 게
③	㉢	지저귀-, -는	지저귀는
④	㉣	소리, 예	소리, 예
⑤	㉤	깨-, -었-, -다	깨었다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정답 선지 해설]

② '-답-'은 접미사로 명사 '정'과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 '정답다'를 만든다. '정답게'는 형용사 어간 '정답-'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태로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정', '-답-', '-게'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만, '정답게'를 '정답'과 '게' 두 개의 단어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지 해설]

① 명사 '떼'와 조사 '가'가 결합할 때 '떼가'로 붙여 쓰지만, '떼'와 '가'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각각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떼'와 '가'를 분석하고, 단어로 '떼'와 '가'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③ 동사 어간 '지저귀-'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지저귀는'은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지저귀-'와 '-는'을 분석하고, 단어로 '지저귀는'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④ 명사 '소리'와 조사 '에'가 결합할 때 '소리에'로 붙여 쓰지만, '소리'와 '에'는 각각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각각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소리'와 '에'를 분석하고, 단어로 '소리'와 '에'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⑤ 동사 어간 '깨-'와 선어말 어미 '-었-',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깨었다'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형태소로 '깨-', '-었-', '-다'를 분석하고, 단어로 '깨었다'를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개인적인 포인트: 정답다의 분석을 꼭 암기했으면 함 매우 헛갈림

8. 문제 풀고 <보기> 구분법 암기하기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있다’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 품사로 나뉜다. ‘있다’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에는 형용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닐 때는 동사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형용사 ‘있다’만이 ‘없다’의 반의어이고 동사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

- ①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있어.’에서 ‘있어’는 동사이다.
- ②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에서 ‘있는다’는 동사이다.
- ③ ‘나도 아픈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에서 ‘있다’는 형용사이다.
- ④ ‘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에서 ‘있는’은 동사이다.
- 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에서 ‘있을’은 형용사이다.

{정답 풀이}

④ ‘가방에 있는 물건을’의 ‘있는’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는’과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조용히 있어’의 ‘있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어’와 교체가 불가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집에 있는다고’의 ‘있는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는다’와 교체가 불가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③ ‘도운 적이 있다’의 ‘있다’는 ‘무엇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다’와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 ⑤ ‘기회가 있을’의 ‘있을’은 ‘무엇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 ‘없을’과 교체가 가능하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포인트: 형용사 있다 만이 없다가 반의어이고 동사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가 아니다 이게 쟁점 중요

9. 상대 높임의 어휘에 낯이면 안됨 상대 높임은 높이지 않는 상대 높임도 존재함

10. 발화시 사건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함

<보기>의 ㉠~㉥의 밑줄 친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진수는 힘차게 달리는 말을 바라보았다.
- ㉡ 선영이는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들었다.
- ㉢ 버스 안에는 3명의 승객만 타고 있었다.
- ㉣ 형님께서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다.
- ㉤ 나는 앞으로 읽은 책도 또 읽을 것이다.

- ① ㉠: 발화시 기준으로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 ② ㉡: 행동이 다른 행동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③ ㉢: 현재의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④ ㉣: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⑤ ㉤: 발화시 기준으로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답 풀이}

- ③ ㉢는 '-고 있다'를 통해 '타다'라는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때의 '-고 있다'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에서처럼 행동을 계속 진행하는 뜻의 '-고 있다'와 구별된다.

{오답 풀이}

- ① ㉠는 발화시인 현재 기준으로 말이 달리는 사건과 '진수'가 그 말을 바라본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는'에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 이유는 말을 바라본 그 시점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 ② ㉡는 '밥을 먹으면서'라는 행동이 다른 행동인 '음악을 들었다'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④ ㉣는 '-아 있다'의 주체 존대형인 '-아 계시다'를 통해 '앉다'라는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⑤ ㉤는 발화시인 현재 기준으로 '읽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든 그 후에 다시 책을 읽는다면 성립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3년 6월 1일이라고 가정할 때, 과거인 2022년 6월 1일에 책을 읽었던 미래인 2024년 6월 1일에 책을 읽든 그보다 더 미래인 2025년 6월 1일에 그 책을 또 읽는다면 '읽은'은 발화시 기준으로 과거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1. 명령형과 청유형의 구분이 중요함

구분법¹: 주로 명령형은 청자만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만

청유형은 함께 행동하자고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음

구분법²: 명령형과 청유형은 종결 어미의 차이가 있음

명령형은 ‘어라’, ‘게’, ‘오’, ‘십시오,’ ‘시오’, ‘라’ 등

청유형은 ‘자’, ‘세’, ‘시지요’, ‘하십시오’ 등

첨언하자면 별 일 없으면 쉽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저거 사용하지 말고 구분이 안가는 어려운 경우에만 추가로 사용할 것

헛갈리는 대표적 예시 두 개(실제 수완 출제)

A: 짐칸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이 짐 좀 올려 주겠나?

B: (짐을 들며) 예, 할머니. 제가 올려 드릴게요.

A: 상처는 아물었나요? ㉡어디 좀 봅시다.

B: (상처를 보여 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 ㉠: 의문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 청유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은 문장의 종결 형식은 의문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청자에게만 행동할 것을 요구함 구분법¹ 사용하기) 간접 발화는 맞으나 청유의 의도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은 문장의 종결 형식은 청유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청자에게만 행동할 것을 요구함 구분법¹ 사용하기) 간접 발화이고 명령의 의도도 맞음

12(매체).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개

13(매체).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은 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과 기술이 요구됨

14(매체). 종이 신문은 선형적 형태로 구성된 매체라 하이퍼 텍스트를 통해 수용자가 연관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선형적이라는 것은 책을 읽을 때 1쪽부터 순서대로 읽는 것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읽게 텍스트가 배치된 것을 의미

비선형적은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중간에 링크가 있다면 해당 기사를 읽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의미함

15. 피동과 사동 관련된 지문인데 (ㄹ)과 (ㅁ)이 매우 중요함
 해당 부분 온전히 이해하고 수능장에 가야함
 지문형이지만 이 지문형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권함

피동문과 사동문은 어떤 기준 문장과 대조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 기준 문장은 피동문과 대조해서는 능동문이라고 하고 사동문과 대조해서는 주동문이라고 한다.

- (ㄱ) 호랑이가 고기를 먹었다.
- (ㄴ) 고기가 호랑이에게 먹혔다.
- (ㄷ)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고기를 먹였다.

(ㄱ)을 기준 문장으로 하여 피동사 '먹히다'가 사용된 피동문 (ㄴ)과 사동사 '먹이다'가 사용된 사동문 (ㄷ)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ㄱ)은 피동문과 대조해서는 능동문이 되고, 사동문과 대조해서는 주동문이 된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부사어는 종종 생략된다. 이와 반면에 사동문에서는 사동주라고 불리는 새로운 참여자를 도입한다. 사동주는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라고 불리는 주동문의 주어가 하는 행위나 처한 상태를 야기하는 주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피동문에 비해 사동문은 그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 (ㄹ) Y가 자동사/형용사.
 - X가 Y를 자동사.
 - X가 [Y가 자동사/형용사]-게 하다. ㉠
 - X가 Y를 [(Y가) 자동사/형용사]-게 하다. ㉡
- (ㅁ) Y가 Z를 타동사.
 - X가 Y에/에게 Z를 사동사. ㉢
 - X가 [Y가 Z를 타동사]-게 하다. ㉣
 - X가 Y에/에게 [(Y가) Z를 타동사]-게 하다. ㉤

(ㄹ)과 (ㅁ)에서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문은 홀문장이므로 구조가 단순한 반면, '-게 하다' 사동문의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ㄹ)과 (ㅁ)의 '-게 하다'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이 부사형 어미 '-게'가 이끄는 부사절로 안겨 있다. 절에는 원칙적으로 주어가 있어야 하므로 (ㄹ)과 (ㅁ)의 부사절인 [] 속에도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어인 Y는 [] 앞에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말이므로 생략된다. 이에 더해 사동문 ㉢과 ㉣에서는 'Y에/에게' 대신에 'Y를'을 쓰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구조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1. ㉠~㉣의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때 마술사는 장미가 저절로 피게 했다.
- ② ㉡: 누나의 고통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③ ㉢: 선영이 언니는 그 집에 이삿짐을 옮겼다.
- ④ ㉣: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
- ⑤ ㉤: 동생이 나에게 그 상품을 구입하게 했다.

2.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ㄴ 중 적절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사동문에 있는 사동주를 제거하면 피동문이 된다.
- ㄴ. “엄마가 나를 안았다.”는 ‘엄마’가 주체가 되어 행동한 것이므로 “나는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하면 능동문이다.
- ㄷ. ‘-게 하다’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목적어로 나타나면 ‘-게’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주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ㄹ. “나는 개를 밥을 먹였다.”는 안긴문장의 주어인 ‘개가’가 목적어 ‘개를’로 됨으로써 만들어진 문장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선영이 언니는 그 집에 이삿짐을 옮겼다.’에서 ‘그 집에’는 피사동주가 아니고 옮기는 행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이 예문과는 달리 ‘그 회사가 사실을 알았다.’와 같이 타동사가 사용된 주동문을 ‘나는 그 회사에 사실을 알렸다.’와 같이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으로 만들면 ㉔의 예가 된다. 이때의 ‘그 회사’는 주동문에서 주어로 쓰였으므로 피사동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주동문 ‘장미가 저절로 피었다.’를 ‘마술사’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피다’는 자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㉗과 같으므로, ㉗의 예로 적합하다.

㉒ 주동문 ‘나의 마음이 아프다.’를 ‘누나의 고통’을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아프다’는 형용사이고 문장 구조도 ㉙과 같으므로, ㉙의 예로 적합하다.

㉔ 주동문 ‘내가 그 일을 했다.’를 ‘할아버지’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하다’는 타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㉕과 같으므로, ㉕의 예로 적합하다.

㉕ 주동문 ‘내가 그 상품을 구입했다.’를 ‘동생’을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구입하다’는 타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㉕과 같으므로, ㉕의 예로 적합하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㉒ ㄴ: “엄마가 나를 안았다.”는 피동문인 “나는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해서는 능동문이다. 만약 사동문인 “언니가 나를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한다면 주동문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ㄴ은 적절한 진술이다.

ㄷ: (ㄷ)에서 ‘-게 하다’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Y인데, Y가 ‘-게’가 이끄는 부사절 바깥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면, ㉔에서 보듯이 부사절 안에서는 생략된다. 그러므로 ㄷ은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사동문에 있는 사동주를 제거하면 주동문의 성분만 남게 되는데 서술어는 사동사나 ‘-게 하다’ 그대로이므로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ㄱ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ㄷ: 지문에서 ‘Y에/에게’ 대신에 ‘Y를’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개에게’가 ‘개를’이 된 것이지 ‘개가’가 ‘개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ㄷ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16.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ㅅ은 바로 ㄷ으로 바뀔
꽃이 ㅅ 이 되는 것

17. 어미의 분석

노력했다면: 선어말 어미 ‘였’, 연결 어미 ‘다면’

얻었겠지: 선어말 어미 ‘었’과 ‘겠’, 종결 어미 ‘지’

상징합니다: 종결 어미 ‘ㅂ니다’

18. 모음 조화는 하나의 형태의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예시)

‘아드릭’에서 확인되는 형태소인 ‘아들’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고, ‘구루미’에서 확인되는 형태소인 ‘구름’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으로 각각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보여 준다. 또한 관형격 조사가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나타나 체언과 조사의 모음 조화도 확인된다.

19(매체). 사실 이게 신유형인데(지금까지 매체 6문제 한 번에 한 지문에 대해 나온 적이 없음) 6,9에 만나와서 이렇게 낼지는 의문임 그래도 뭐... 풀어보면 나쁘지 않을 거 같음

수능완성 언어와 매체 154P부터 나오는 40~45 세트 찾아서 풀어보면 될 듯

20. 형용사 ‘다르다(다른으로 활용)’와 관형사 ‘다른’의 구분법

문장에서 other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면 관형사(서술성 X)

문장에서 different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면 형용사(서술성 O)

21. 우리말에서의 ‘이다’와 관련된 지문형 문법

이거도 이해하고 외우고 들어가야 할 듯

우리말의 ‘이다’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이’가 탈락될 수 있어 특이하다. 가령, ‘장미이다’는 ‘장미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가 탈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꽃이다’와 같이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일 때는 ‘*꽃다’와 같이 ‘이’가 탈락될 수 없다.

‘이다’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학생이다’, ‘학생이었다’, ‘학생이겠다’ 등과 같이 활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때에도 특이한 점이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였-’이 ‘이다’와 함께 쓰일 때, 결합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인 경우 ‘-였-’으로 줄여 쓸 수 있다. 가령, ‘오징어이었다’는 ‘오징어였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공책이었다’를 ‘*공책였다’와 같이 줄여 쓸 수 없다. 간혹 ‘*공책이었다’와 같이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였-’은 ‘이었-’이 줄어든 말이므로 ‘*공책이었다’는 ‘*공책이이었다’라고 쓴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이-’에 종결 어미 ‘-예요’가 결합된 ‘이예요’를 줄여 쓰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한편 ‘아니다’는 ‘이다’와 다르게 체언과 결합하지 않고도 홀로 쓰일 수 있어 조사로 보기 어렵고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용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이 어렵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에서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의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형용사 어간 ‘아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였-’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면 ‘아니었다’가 된다. 그런데 ‘*아니였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아니-’에 ‘이다’가 다시 결합할 이유가 없으므로 ‘*아니였다’와 같은 표기는 잘못이다.

※ *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기임을 나타냄.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미이다’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
- ② ‘이다’는 조사와 용언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 ③ ‘이다’의 ‘-다’는 ‘먹다’의 ‘-다’처럼 종결 어미이다.
- ④ ‘아니다’의 활용을 고려하면 ‘아니다’의 어간은 ‘아니-’이다.
- ⑤ ‘아니예요’의 종결 어미 ‘-예요’는 ‘-예요’에서 줄어든 것이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꽃이예요’는 ‘*꽃이이예요’로 볼 수 있겠군.
- ② ‘장미예요’의 ‘예’는 ‘이에’가 줄어든 말이겠군.
- ③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줄지 않겠군.
- ④ ‘호랑이’와 ‘이예요’가 결합한 ‘호랑이예요’는 올바른 표기이겠군.
- ⑤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군.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㉟ 4문단을 통해, '아니-'는 형용사 어간이므로 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에 '-에요'가 결합하면 '아니에요'가 된다. 따라서 '아니에요'의 종결 어미 '-에요'가 '-에요'에서 줄어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2문단을 통해, 체언과 '이다'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미이다'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1, 2문단을 통해, '이다'는 조사의 특성과 용언의 특성을 모두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는 조사와 용언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2문단을 통해, '이다'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인' 등과 같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학생이다'의 '-다'는 다른 용언과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다'의 '-다'는 '먹다'의 '-다'처럼 종결 어미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3문단을 통해, '아니다'는 형용사로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등과 같이 활용을 하는데, '아니-'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니다'의 활용을 고려하면 '아니다'의 어간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호랑이'와 결합하여 '호랑이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종결 어미 '-에요'가 결합하면 '호랑이이에요'가 된다. 이를 줄이면 '호랑이에요'가 된다. 따라서 '호랑이에요'가 올바른 표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에요'는 '이에요'를 줄인 말이므로 '*꽃이에요'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두 번 나오는 셈이다. 따라서 '*꽃이에요'는 '*꽃이이에요'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경우, '장미이에요'는 '장미에요'처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장미에요'의 '에'는 '이에'가 줄어든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책이에요'는 '*책에요'로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에'로 줄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장미이었다'보다 '장미였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장미이에요'보다 '장미에요'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에'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2. 지문형 문법인데 음절을 소리 음절이랑 글자 음절로 나눈 점이 매우 독특함 + 4문단의 영어와의 비교

음절은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음절은 자음, 모음(단모음), 반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서 이루어지지만, 모든 분절 음운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에서는 모음만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어의 모든 음절에는 모음이 있어야 한다.

음절은 소리(발음)를 기준으로 한 음절과 글자(철자)를 기준으로 한 음절로 나뉜다. 앞엿것을 소리 음절, 뒤엿것을 글자 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절이라고 하면 소리 음절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음절을 뒤의 개념으로 더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끝말잇기를 하거나 단어 각 음절의 초성을 보여 주고 해당되는 단어를 맞히는 초성 게임을 할 때의 음절과 초성은 모두글자 음절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초성 게임에는 앞 음절의 종성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 자음으로 옮겨져 발음되는 연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초성 게임’은 ‘초성 글자 게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한국어의 소리 음절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4가지에 더해 ㉡‘각 모음 앞에 반모음이 들어간 경우와 각 모음 뒤에 반모음이 들어간 경우까지 고려하면 소리 음절 유형의 가짓수는 12가지가 된다. 이 12가지 중 일부는 발음으로만 존재할 뿐 글자 음절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글자 음절이 소리음절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결의는’을 줄인‘결인[겨틴]’에서는 소리 음절 [틴]이 글자 음절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구개음 바로 뒤에는 반모음 ‘j’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가저]’에서 ‘저’는 소리 음절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리 음절의 구성에는 세계 여러 언어마다 고유한 제약이 존재한다. 가령 영어에서는 ‘tree’ 처럼 초성에 자음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어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하나뿐이다. 또한 모든 음절의 초성에서 ‘ㅇ’발음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도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에는 소리 음절로 나타나지 않는 글자 음절도 있고 글자음절로 나타나지 않는 소리 음절도 있다.
- ② 초성 게임에서 ‘복어’의 각 음절의 초성은 소리 음절의 초성과 다르다.
- ③ 국어에서 1개의 소리 음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절 음운의 수는 최대 4개이다.
- ④ 영어의 1음절 ‘spring’은 음절 초에 자음 ‘s’, ‘p’, ‘r’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국어에서 3음절인 ‘스프링’이 된다.
- ⑤ ‘방울’에서의 첫 번째 ‘ㅇ’은 글자 음절과는 달리 소리 음절에서는 초성이다.

2. 밑줄 친 음절 중 ㉠ 유형에 ㉡의 특성이 더해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약밥 ② 뽕고 ③ 여비 ④ 과제 ⑤ 권한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만약 '방울'에서 'ㅇ'이 연음된다면 둘째 소리 음절의 초성이 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모든 음절의 초성에서 'ㅇ' 발음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므로, 'ㅇ'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소리 음절 유형 12가지 중 일부는 글자 음절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글자 음절이 소리 음절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㉕ '북어'는 소리 음절로 '부거'이므로 초성은 'ㅂ'과 'ㄱ'이다. 그러나 초성 게임에서는 'ㅂ'과 'ㅇ'이 초성이다.

㉖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고 중성에는 모음과 반모음이 올 수 있으므로, (이게 매우 특이한 포인트임 중성에 반모음도 올 수 있다고 보는 점)국어에서 1개의 소리 음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절 음운의 수는 최대 4개이다.

㉗ 영어에서는 음절 초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음 's', 'p', 'r'가 연달아 나올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초성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s', 'p', 'r'의 음절을 분리하여 3음절인 '스프링'으로 말하게 된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㉘ ㉔은 '모음+자음' 유형의 음절이다. 거기에 ㉔의 특성을 더해 모음 앞에 반모음이 오면, '반모음+모음+자음'의 음절 유형이 된다. '약'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㉙ '병고'의 '병'은 '자음+반모음+모음+자음' 유형이다.

㉚ '여비'의 '여'는 '반모음+모음' 유형이다.

㉛ '과제'의 '과'는 '자음+반모음+모음' 유형이다.

㉜ '권한'의 '권'은 '자음+반모음+모음+자음' 유형이다.

23. ㉔ 저기, 성민아. (휴대 전화를 보여 주며) 이번 주에 ㉔우리 여기 가서 숙제할래?

해당 문장에서 '저기'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감탄사이자 독립어임

24. 방점에 대한 정리(21 09에 출제기출 같이보기)

방점은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냄

평성: 안 찍은 거 낮은 소리를 의미

거성: 1개 찍은 거 높은 소리를 의미

상성: 2개 찍은 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의미

25. 상대 높임 관련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과연 건강에 좋은 ㉠걸까요?

‘걸까요’는 ‘것일까요’의 준말로, ‘것입니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격식적인 자리에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요체의 준말을 사용하여 격식체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더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6. 상대 높임 문제 출제

(수능에 이거 나오는 순간 다 무너짐 혹시 모르니 외우도록하자)

<보기 1>은 문장의 종결 표현과 상대 높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기 2>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1 >

문장의 종결 표현은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종결 표현을 결정짓는 것은 종결 어미인데, 종결 어미는 문장의 종결 표현을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등급의 상대 높임도 결정짓는다.

< 보 기 2 >

- ㉠ 거기 누구요?
- ㉡ 식사하고 야구 구경 갑시다.
- ㉢ 이보게, 여기에서 쉬어 가세.
- ㉣ 정말 여기는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 ㉤ 여보,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구려.

- ① ㉠: 종결 어미 ‘-요’에 의한 해요체 의문문이다.
- ② ㉡: 종결 어미 ‘-십시오’에 의한 하십시오체 청유문이다.
- ③ ㉢: 종결 어미 ‘-세’에 의한 하계체 평서문이다.
- ④ ㉣: 종결 어미 ‘-구나’에 의한 해체 감탄문이다.
- ⑤ ㉤: 종결 어미 ‘-구려’에 의한 하오체 명령문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의 '-구려'는 상대에게 권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하오체 종결 어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점잖게 상대를 존중해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장은 명령문이므로 하오체 명령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누구요'는 겉보기에는 해요체처럼 보이지만, 하오체를 쓸 만한 상대에게 하는 말이다. '요'는 '누구+이-(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오(하오체 종결 어미)'에서 '이오'가 줄어든 말이다. 의문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잡시다'는 겉보기에는 하십시오체처럼 보이지만, 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십시오체가 아니다. 하오체를 쓸 만한 상대에게 하는 말이다. 청유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세'가 하계체인 것은 맞으나 평서문이 아니라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함께 하자고 하는 청유문이다.

④ '아름답구나'는 해라체이다. 그래서 '*아름답구나요'와 같이 '요'를 붙여 해요체 높임으로 만들 수 없다. 감탄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해당 표를 보며 개략적인 이해를 하자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잡습니다	잡습니까?	잡으십시오	(잡으시지요)	.
	하오체	잡소/잡으오	잡소/잡으오?	잡소/잡으오	잡읍시다	잡는구려
	하계체	잡네	잡나?잡는가?	잡게	잡으세	잡는구면
	해라체	잡는디	잡나?잡(느)나?	잡아라/잡으렴	잡자	잡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해체 (반말)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판단 팁

하십시오체는 ‘습니다, 십시오, 습니까’등으로 끝나고
해요체는 ‘요’로 끝남

다음은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를 구분하는 방법

① ‘-요’를 붙여보고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하기.

말이 되면 비격식체이므로 해체

② 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기

상대 높임은 기본적으로 청자에 관한 높임법입니다. 따라서 어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오체의 청자는 주로 ‘그대, 당신’ 등 부부관계 혹은 자기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고, 하계체의 청자는 주로 ‘자네, 김 군’ 등 나이든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라체임

단, 외워야 할 것

1. -시지요 :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어미(-요로 끝나지만 해요체가 아님)
2. -비시다 : 하오체의 청유형 어미(얼핏 하십시오체로 보이지만 하오체임)
3. 감탄형 어미 ‘-구려, -구먼, -구나’ 각각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하십시오체는 감탄형 어미 없음. 하오, 하계, 해라 순서대로 ‘-구려, 먼, 나)

해당 판단법은 나랏말씀님의 판단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법을 알고 싶으시면 밑의 링크나 제가 올린 글에 나온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학습해주세요!

<https://orbi.kr/00018431147>

27. 모음과 관련된 지문형 문법인데 그냥 암기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외우곤 한다. 그런데 이 10개만으로는 우리말의 모음을 제대로 쓸 수 없다. ‘개’, ‘애’, ‘계’, ‘예’ 등과 같이 10개 이외의 모음으로 표기되는 많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자모 24개 가운데 모음 글자는 10개이고 나머지 모음 글자는 이 10개 중 둘 또는 세 개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ㄲ’은 ‘ㄱ’과 ‘ㅇ’이 합쳐진 글자이고, ‘ㄴ’은 ‘ㄷ’, ‘ㄹ’, ‘ㄴ’이 합쳐진 글자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모음 글자를 만들었던 원리와 관련이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모음의 기본자를 하늘[天]과 땅[地], 사람[人]을 본뜬 ‘ㄷ, ㅡ, ㅣ’로 삼아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 ‘ㄷ, ㅏ, ㅑ, ㅓ’를 만들고, 초출자를 바탕으로 재출자 ‘ㅛ, ㅕ, ㅜ, ㅠ’를 만들었다. 이 11자는 훈민정음의 28자 가운데 모음 글자 11개에 해당하고, 이들을 제외한 모음 글자들은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11개의 모음 글자 가운데 ‘.’를 제외하면 우리가 외웠던 10개의 모음 글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의 문제에서 단모음을 표시하는 모음 글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과 혀의 모양이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과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적고, 이중 모음은 둘 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적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세 국어의 단모음 ‘ㅣ, ㅡ, ㅓ, ㅕ, ㅗ, ㅛ, ㅜ’는 모음 기본자와 초출자에 해당하여 모두 하나의 글자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중 모음 가운데에도 하나의 글자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재출자 ‘ㅛ, ㅕ, ㅜ, ㅠ’는 ‘ㅓ, ㅕ, ㅗ, ㅛ’의 앞에 반모음 ‘j’가 각각 더해진 이중 모음을 표기하는 글자이지만 단모음을 표기하는 문자와 같이 11개의 모음 자모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중세 국어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어 중세 국어 단모음에 ‘ㄲ, ㄲ, ㅓ, ㅕ’가 추가되고 ‘.’가 없어졌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 ‘ㄲ, ㄲ, ㅓ, ㅕ’는 모두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더해진 이중 모음이었다. 가령, ‘ㄲ’은 단모음 ‘ㅏ’와 그 뒤에 반모음 ‘j’가 더해진 이중 모음이었다. 이 점에서 현대 국어에서 ㉠

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
- ② 단모음은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③ ‘ㄲ, ㄲ, ㅓ, ㅕ’는 단모음임에도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④ 이중 모음 ‘ㅛ, ㅕ, ㅜ, ㅠ’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
- ⑤ 이중 모음 ‘ㅑ, ㅓ, ㅕ, ㅛ, ㅜ, ㅠ, ㅛ, ㅕ, ㅜ, ㅠ’는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

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ㄲ’은 ‘ㅣ’, ‘ㅓ’, ‘ㅕ’의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겠군.
- ② 현대 국어의 단모음 수가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보다 많겠군.
- ③ 중세 국어에서는 반모음 ‘j’가 단모음의 뒤에도 올 수 있었겠군.
- ④ 한글 24 자모의 모음 글자 중 여러 글자가 합쳐진 글자는 없겠군.
- ⑤ 훈민정음의 재출자는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을 나타냈겠군.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지문의 마지막 문단은 ‘개, 깨, 뇌, 귀’가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다가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이 되었고, 이들 모음 글자는 각각 ‘ㅏ+ㅣ’, ‘ㅑ+ㅣ’, ‘ㅓ+ㅣ’, ‘ㅕ+ㅣ’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개, 깨, 뇌, 귀’는 단모음이면서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개, 깨, 뇌, 귀’는 단모음이지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하므로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단모음 가운데 ‘ㅣ, ㅡ, ㅓ, ㅕ, ㅗ, ㅛ’ 등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하므로 단모음은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요, 쥘, 쑤, 쑥’은 이중 모음이지만 하나의 글자로 표시하므로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개, 깨, 뇌, 귀’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하고 단모음이므로 ‘개, 깨, 뇌, 귀’가 이중 모음이며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께’는 ‘ㅋ’와 ‘ㅣ’가 결합된 글자인데, 1, 2문단을 통해 ‘ㅋ’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께’는 ‘ㅣ’, ‘ㅋ’, ‘ㅣ’가 합쳐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4,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ㅣ, ㅡ, ㅓ, ㅕ, ㅗ, ㅛ, ㅜ’의 7개인데,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중세 국어의 단모음에서 ‘ㅣ’가 빠지고 ‘개, 깨, 뇌, 귀’가 추가되므로 모두 10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단모음 수가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보다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더해진 이중 모음이 ‘개, 깨, 뇌, 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올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1문단을 통해, 한글 자모 24개 가운데 모음 글자 10개는 하나의 글자이고 나머지 모음은 이 10개를 두 개 또는 세 개 합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 24 자모 가운데 모음 10개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4문단을 통해, 훈민정음 재출자 ‘요, 쑤, 쑥, 쑤’는 단모음 ‘ㅓ, ㅕ, ㅗ, ㅛ’의 앞에 반모음 ‘j’가 각각 더해진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재출자는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개인적인 팁: 이중모음을 구성할 때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오는 것들과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오는 것을 구분해두고 암기해야함

28. 반모음 탈락

젓혀서 -> 저쳐서

1. 축약이 일어남

2. ㅈ가 ㅉ가 되면서 반모음 'j'의 탈락이 일어남

정리(수특 13p 날개 기준)

반모음 j='l' 계열 이중 모음: ㅌ ㅍ ㅊ ㅅ ㅈ ㅉ ㅊ ㅅ ㅈ ㅉ

반모음 w = 오/우 계열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29. 지문형 문법 내용 이해하고 가야함 특히 4문단

말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동음어 혹은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가령,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뜻하는 ‘다리’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을 뜻하는 ‘다리’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그런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말 접사 가운데 발음은 같은데 그 의미가 달라 동음이의어와 유사한 관련을 맺는 것들이 있다.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 가운데 ‘한데’의 ‘한-’과 ‘한걱정’의 ‘한-’을 살펴보자. ‘한데’의 ‘한-’은 ‘바깥’의 뜻을 갖는 반면, ‘한걱정’의 ‘한-’은 ‘큰’의 의미이다. 이들은 ㉠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접두사 ‘한-’과 관련된 단어에는 ‘한여름’이나 ‘한낮’ 등도 있다. 이 단어들에 쓰인 ‘한-’은 ‘한창인’의 의미를 갖는데, 이때의 ‘한-’과 ‘한걱정’의 ‘한-’을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두 접사의 의미, 즉 ‘한여름’의 ‘한-’이 갖는 의미 ‘한창인’과 ‘한걱정’의 ‘한-’이 갖는 의미 ‘큰’이 의미적으로 가까워 의미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 다의어라고 하는데, 접사의 경우에도 다의어처럼 하나의 접사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접사와 단어가 발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익살맞다’의 ‘-맞다’와 ‘야단맞다’의 ‘맞다’를 살펴보자. ‘익살맞다’의 ‘-맞다’는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이에 비해 ‘야단맞다’의 ‘맞다’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이다. 접미사 ‘-맞다’와 동사 ‘맞다’는 발음은 같지만 의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특히 단어 형성 차원에서 이 단어들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익살맞다’는 ㉡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인 반면, ‘야단맞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접사와 형태가 같다고 해서 모두 파생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본래의 뜻을 유지하면서 다른 성분과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30. 좀 특이한 접사 정리

‘몰상식하다’의 ‘몰-’은 ‘그것이 전혀 없음.’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몰표’의 ‘몰-’은 ‘모두 한곳으로 몰린’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다.

‘맞대결’의 ‘맞-’은 ‘마주 대하여’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맞들었다’의 ‘맞-’ 역시 ‘마주’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별나다’의 ‘-나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별나다’는 파생어이다.

‘값지다’의 ‘-지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값지다’는 파생어이다.

‘주름지다’의 ‘지다’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 ‘주름지다’는 합성어이다.

31(매체). 6문제짜리 매체 세트임

수능완성 언어와 매체 261p 풀어볼 것을 권함